

마을의 기록,
도서관 아카이브

#경기도성남시 #마을여성기록특화

책 이 랑
도 서 관



책이랑 도서관은 마을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이랑 도서관은 1995년 5월 16일, 성남 상대원동 언덕배기 주택가 한가운데에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23살이 되었네요. 마을의 당산나무처럼 지금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와 엄마, 손자 3대를 이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초창기에 이용했던 아이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그 아이의 엄마들도 성장하여 청소년센터장으로, 지역아동센터장으로 사회복지사로 어엿한 지역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책이랑 도서관의 2017년
은 어땠나요?**

책이랑 도서관은 23년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와 사건이 담긴 자료와 사진이 사무실 한 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볼 때마다 자료가 더 분실되기 전에, 하루 날 잡아서 정리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방대한 자료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화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아카이브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책이랑 도서관은 1995년에 문을 열었고 관장인 저는 1998년에 책이랑 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책이랑 도서관에서 20년을 보냈네요. 그때가 제 아이들이 4, 5살이었습니다. 독박육아로 지쳐 있던 저에게 책이랑 도서관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였고, 교육 문제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책수다방, 그야말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시원한 샘물이었습니다.

책이랑 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 정치, 통일 등 다양한 강좌와 전문적인 주부대학 교육이 있었고 그러한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운 것을 잘 익혀서 엄마들이 선생님이



▲ 1997년 제2기 주부대학



▲ 2000년 제5기 주부대학

보내고 있습니다. 튕짱 베네딕도수녀회에 무상임대로 도서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도서관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책이랑 도서관의 공간과 활동이 지역의 여성들과 아이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소리쳐 이야기하고 돌봄 서비스를 해왔다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책이랑 도서관을 이전하지 않고 살려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초창기 그룹 인터뷰

이러한 책이랑 도서관의 특화사업은 22년의 자료와 사진을 기록물로 남기는 아카이브 사업과 40년이 넘는 건물의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공사와 아카이브한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 사업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아카이브 사업은 자료와 사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아카이브합니다. 책이랑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쉽지 않더군요. 아직 도서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남을 떠나 멀리 고양, 인천, 당진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26번의 인터뷰, 초창기 그룹, 중반기 그룹, 현재 그룹, 최장수 동아리, 3대 이용자, 개별 인터뷰, 전화 인터뷰 등.

또 하나의 사업은 건물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튿짱 포교 베네딕도수녀회의 건물로 23년째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장마가 오기 전 6월에 지붕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도서관과 수녀회와의 복잡한 상황과 관계로 인해 수녀회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다가 12월에 떨어졌습니다. 애초에는 천장 누수가 있어서 지붕공사만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팀이 와서 보니 도서관 외벽 또한 물이 새고 있어서 외벽공사

도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금액 또한 증가하여서 외벽공사까지 할 경우 전시 공간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했지요. 지붕공사만 하고 전시 공간 공사를 작게나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사하는 날,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다 뺐으나 도서관 안의 경사가 심해서 공사 차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사 철수. 결국은 2018년 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바뀌었고 막판에는 하루에 하나씩 문제가 불거져 번거롭게 해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미안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새 23살이 된 책이랑 도서관은 2017년에 22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22주년을 맞아 함주부와 책이랑 도서관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길 바라며 짝막하게 적은 글을 통해 그때의 제 마음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운영위원들의 구산동도서관마을 탐방

2017년 10월 27일 저녁,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서관의 그 해 주요 사업을 담은 연표를 만들어 강당 벽에 붙이고 그 밑에 활동사진도 전시했습니다. 그러니 강당의 한 쪽 벽면이 꽉 찹니다. 초창기 때부터 동아리 이름도 나열해서 붙였습니다. 40개가 넘습니다. 벽면의 테이블

에는 22년간의 소식지 울림통 1호부터 74호, 차차차 1호부터 8호, 주부대학 자료와 포스터, 총회 자료, 각종 교육 자료, 활동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들을 전시했습니다.

10월 28일 아침,

얼마나 오실까? 걱정되고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들 그저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34명이 도서관 강당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함주부 & 책이랑 도서관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내 이름을 찾아 준 곳', '내 생애 마이크를 처음 잡게 해 준 곳'이라고 초창기 활동가들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도서관이 있을 줄 몰랐는데 지켜줘서 '고맙다' 합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있기에 이용했던 현재의 활동가들은 누군가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인 걸 듣고 그들에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진한 감동이 있는 울컥울컥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고단했던 피로와 눈물이 날아갑니다.



책이랑 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2017년은 책이랑 도서관의 22년간의 방대한 자료와 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브해서 책으로 엮어내고 영상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지붕과 외벽 공사는 2018년 이월되어 2월에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아카이브를 한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지역의 이야기와 역사를 재미나고 효과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 합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서관은 그 자체로 마을공동체의 거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특화를 고민했던 책이랑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잘 살았어!

우리들이 함께한 지난 22년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책이랑 도서관과 지역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

